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김승수 전주시장, 혁신도시 컨퍼런스서 정부·지자체·이전공공기관 상생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국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생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6 혁신도시 컨퍼런스'에서 '혁신도시의 현재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이 상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건설성과를 되돌아보고,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모색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인구의 49.4%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과밀 폐해를 완화시키고, 지역별 혁신거점 도시를 육성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협실은 오랜 기간 축적돼온 지방의 낙후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발전 동력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인재 35%이상



덕유산국립공원 정상에 첫 단풍

덕유산 정상 함적봉(1,614m)에도 가을이 찾아와 천고(天高)의 하늘과 함께 단풍으로 물들여지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소장 홍대)에 따르면, 덕유산 정상의 주능선은 예년과 비슷한 9월 말(29일) 첫 단풍을 시작으로 10월 초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의무채용이 법제화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내에 지역인재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면 일자리 인재를 유출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부·지자체·이전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발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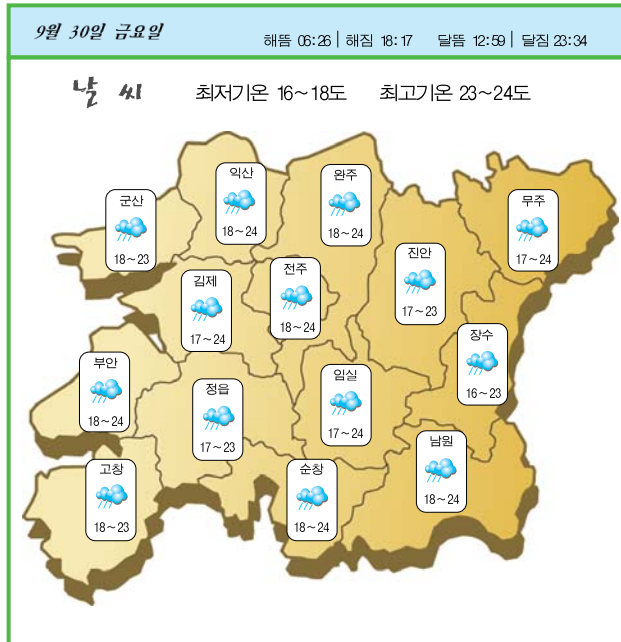
인 상생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목적과 기대효과 △전북혁신도시 조성과정과 조성 후의 지역의 변화상 △혁신도시의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혁신도시 조성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증

가와 지방세수 증가, 지역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와 정부차원의 상생 대책 마련으로 지방도시 모두가 기대하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전라북도-가천길재단, 초·중·고교생 대상

전라북도와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2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연다. 이 행사는 내달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그림그리기를 통해 내 고장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북도와 가천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군산시와 가천문화재단, 군산대야초 총동문화가 주관한다. 또한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 학원연합회, 길병원, 가천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를 이용하거나,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전북 군산시 대야관동로 141-13)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도화지는 당일 현장에서 주최측이 제공하며, 도화지 외에 물감, 붓, 크레파스 등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준비해서 오면 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초·중·고·구분,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심사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시사상과 함께 고등학교 100만원, 중학생 50만원, 초등학생 30만원의 부상이 수여되는 등 약 250명의 수상자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물품다량공방에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의 지도교사에게도 감사패가 증정된다.

대회담당 우천사에는 1주일 연가할 예정이며, 우천안내를 비롯한 대회 소식과 자세한 대회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군산 대야초 김혜영 교장은 "학생들은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대야초 선배인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에 후배들이 맘껏 책을 보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한 이후, 2015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 온라인접수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 홈페이지 통해

전주시는 2016년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를 10월 한 달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올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금(생활비 제외)의 하반기(7월~12월) 발생이자 전액이다. 신청 대상자는 10월 1일 기준으로 전주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신청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주시 홈페이지 접수 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제출 서류는 없다. 시는 지원 대상 적격 확인 및 대출

정보 조사를 통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법무과장은 "앞으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이자 지원 신청 시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교육법무과(063-281-531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ekr.or.kr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사업을 농어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 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 Hub로 육성, 관광인프라와 소독기반을 구축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은?

- 농어촌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농수 및 유지관리사업
- 농지농촌사업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 지역 및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질병관리본부 보건분야 홍보

'100인의 국민소통단' 운영

질병관리본부가 질병 이슈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발굴하고 보건분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100인의 국민소통단'을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단식을 갖고 내년 8월까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원은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 주부, 선생님, 퇴직공무원, 의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20~70세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다. /뉴시스